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자!

# 로동신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기관지  
제296호 [루게 제23248호] 주제99 (2010)년 10월 23일 (토요일)

전당, 전군, 전민이  
일심단결하여 선군의  
위력을 더 높이 떨치자!

##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

### 중국공산당 흑룡강성위원회 서기, 중국인민해방군 문예단, 중화전국부녀연합회, 웰남사회과학원 동북아시아연구소대표단이 선물을 올리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 중국공산당 흑룡강성위원회 서기가 선물을 올리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 올리는 선물을 김병현서기가 20일 중국을 방문하고있는 조선로동당 친선대표단장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후보위원이며 당중앙위원회 비서 겸 평양시당 책임비서인 문경덕동지에게 전달하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 중국인민지원군 조선전선참전 60돐에 즈음하여 우리 나라를 방문하고있는 중국인민해방군 문예단이 선물을 올리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 올리는 선물을 중국인민해방군 총정치부 선전본부부장인 리국여단장이 22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부위원장인 인민무력부장 김영춘동지에게 전달하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 중화전국부녀연합회에서 선물을 보내어왔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 보내온 선물을 우리 나라를 방문하고있는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위원인 중화전국부녀

련합회 부주석 겸 서기처 제1서기인 송수암이 22일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이며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부위원장인 양형섭동지에게 전달하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 우리 나라를 방문하고있는 웰남사회과학원 동북아시아연구소대표단이 선물을 올리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 올리는 선물을 사회과학원 부원장 겸 동북아시아연구소 소장인 쉐쑤인 량단장이 20일 해당 부문 일군에게 전달하였다.

본사기자

## 주체사상에 관한 토론회

### 로씨야에서 진행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조선로동당 총비서로 변함없이 높이 추대되신것과 당창건 65돐에 즈음하여 《주체사상과 로조선강화에서의 그 역할》이라는 주제의 토론회가 9일 로씨야의 짜라토프에서 진행되었다. 토론회에는 로씨야공산주의로동자당-혁명적공산주의자당 짜라토프위원회, 짜라토프주체사상 및 선군정치연구회, 짜라토프주체사상연구단체회의의 인사들과

군중이 참가하였다. 토론회에서는 짜라토프주체사상연구단체회의 위원장 강이그리가 보고를 하였다. 그는 주권국가들에 대한 미국과 그 동맹국들의 간섭책동에 대한 나라들의 민족적발전에 부정적영향을 미치고있다고 하면서 이런 조건에서 조선의 국가건설경험은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창시하신 주체사상, 선군사상

결의는 주체사상과 선군정치를 받아들이는것은 현시 로씨야에 있어서 매우 절실한 문제로 나간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우리는 김일성동지께서 진보적인류에게 마련해주신 불멸의 주체사상에 전적인 지지와 공감을 표시하면서 선군의 기치가 있는 한 조선의 앞길에는 언제나 승리와 영광만이 있을것이라고 확신한다. [조선중앙통신]

## 일심단결의 위력으로 혁명적대고조의 승리를 앞당겨나가자

##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와의 현지말씀을 철저히 관철하자

### 옥류관 종업원들의 결기모임 진행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현지말씀을 철저히 관철하기 위한 옥류관 종업원들의 결기모임이 22일에 진행되었다. 고병설 인민봉사총국 총국장, 옥류관 일군들, 종업원들이 모임에 참가하였다. 모임에서는 초급당서 전급선의 보고에 이어 지배인 문경호, 로리전문식당 부문당서 한남수, 작업반장 류재호가 토론하였다. 보고자와 토론자들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새로 건설된 옥류관 로리전문식당을 현지지도하시면서 식당관리운영과 봉사활동에서 나서는 강령적인 과업들을 제시하신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화려한 식당의 외부와 내부를 오랜 시간에 걸쳐 돌아보시며 주방설비와 식사실의 비품에 이르기까지 자세히 알아보시고 최상급의 로리전문식당까지 갖추어 주셨는데 옥류관이 명실공히 우리 민족의 귀중한 재부로 더욱 빛을 뿌리게 된데 대하여 기쁨을 금치 못하시었다고 그들은 말하였다. 그들은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인민들의 식생활을 향상시키고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의 우월성을 더욱 높이 발양시키는데서 옥류관이 중요한 위치에 있다고 하시면서 로리전문식당이 나라의 로리발전에선 현존중의 역할을 하여야 한다고 가르쳐주신데 대하여 강조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현지말씀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이념원리의 리념이 구현되어있는 귀중한 유산인 옥류관을 세계각지의 금양봉사기지로 더욱 발전시키는데서 강령적지침으로 된다고 그들은 말하였다. 보고자와 토론자들은 경애하는 장군님의 현지말씀을 철저히 관철하여 봉사활동에서 새로운 전향을 일으킴으로써 인민봉사의 전당으로서의 사명과 본분을 다해나갈 결의를 표명하였다. 그들은 옥류관에 갖든 절제원칙의 불멸의 령도업적을 고수하고 빛내어나가며 인민들의 식생활향상을 위하여 언제나 마음쓰시는 위대한 장군님의 숭고한 뜻을 받들어

평양평면을 비롯한 음식물의 질을 최상의 수준에 올려세우고 더욱 발전시켜야 할것이라고 강조하였다. 로리전문식당에서는 조선철료리라는 물론 자라, 연, 절감상, 매추리, 왕개구리리리를 비롯하여 세계적으로 이렇나 로리들을 잘 만들어 봉사하며 로리사들의 기술가능수준을 부단히 높이고 위생안전성을 철저히 보장해내 대하여 그들은 언급하였다. 그들은 당의 크나큰 은총속에 마련된 건물과 설비들을 책임적으로 관리하며 명료리들을 더 많이 만드는것과 함께 설비들의 현대화를 보다 높은 단계에서 실현하여야 할것이라고 말하였다. [조선중앙통신]

## 모든것을 인민생활향상을 위하여!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경공업혁명을 일으켜 질 좋은 여러가지 인민소비품을 많이 생산하여야 인민들의 생활을 더욱 윤택하고 문명하게 할수 있습니다.》 정평군의 지방산업공장들에서 정평군에서는 지방산업공장들을 개건하며 인민소비품생산을 늘이는 데 힘을 넣어 년간계획을 앞당겨 수행한 그 기세로 혁신의 불길은 계속 세차게 지펴올리고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지난 8월 함경남도인민소비품전시회장을 찾으신고 정평군전시대에 진열된 상품들을 보아주시면서 정평군의 지방산업공장들이 편갈은것 같다고 치하해주시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기쁨을 드린 크나큰 영광과 긍지를 안고 군의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지방산업공장들을 보다 현대적으로 꾸리며 인민소비품생산을 늘이기 위한 투쟁에 한걸음이 떨쳐나섰다. 그리하여 당창건 65돐으로 정평도자기공장, 가구공장을 비롯한 군의 지방산업공장들에서 년간계획을 훨씬 앞당겨 수행하고 인민들에게 여러가지 상품들을 공급하였다. 도당위원회의 지도밑에 군의

당창건 65돐을 승리의 대추진으로 빛내인 크나큰 궁극적이고 혁명적대고조의 승리를 앞당기기 위한 투쟁에 떨쳐나선 정평군의 지방산업공장과 신의주법랑철기공장에서 인민소비품생산을 늘이기 위한 투쟁이 적극 벌어지고있다. 군의 실정에 맞게 새로 꾸려진 식료공장은 원료격정이 없이 생산을 정상화하고있는것으로 하여 호평을 받고있다. 세 세기의 요구에 맞게 현대적으로 꾸려진 식료공장과 기초식품공장에서는 단장, 간장을 비롯한 소비품이 생산되어 인민들에게 공급되고있다. 군지방산업공장들에서는 질 좋은 인민소비품을 더 많이 생산하기 위한 사회주의경쟁이 힘있게 벌어지고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자기들이 생산한 도자기제품을 보여드려

기쁨을 드린 정평도자기공장의 일군들과 종업원들은 인민들에게 맺고있고 결혼은 도자기제품을 생산공급하기 위하여 전진적인 투쟁을 벌이고 있다. 초물공장과 종이공장, 영에군인수지이용공장을 비롯한 여러 지방산업공장들에서도 종업원의 동의를 높이 올려가고있다. 군에서는 부식물가공과 공업생산리튬반 등을 실정에 맞게 조직하고 농토산물, 자연료, 제백원료, 유류제품을 적극 동원리용하여 식료품과 일용잡화생산에서도 좋은 성과를 거두고있다. 군에서는 자체로 건설한 금강계단식발전소들을 잘 운영하여 전기격정을 모르고 지방산업공장들을 만가동으로 돌리면서 인민소비품생산에서 계속 혁신을 일으키고있다. 특파기자 박 동 석

교제주기를 정확히 지켜 제품의 합격비율을 현저히 높이고있다. 완성공정을 담당한 소성1작장의 시유공, 소성공정은 시유작업을 기술규정의 요구대로 실속있게 하면서 소성로의 기술관리를 잘하여 일일계획을 120%이상씩 해가고있다. 소성2작장의 시유공, 소성공정은 기술규정과 표준조작법을 철저히 지키면서 혁신적인 투쟁을 벌여 높은 생산실적을 기록하고있다. 준비작장의 로동자들은 생산을 함께 책임진 주어진 자각을 안고 유약을 책임적으로 생산하면서 제반과 인쇄인들을 제때에 보강하여 생산을 끊임없이 늘일수 있게 하고있다. 공장에서는 대중적기술혁신운동을 힘있게 벌이기 위한 조직사업을 짜고들어 커다란 성과를 거두고있다. 공장에서는 김책공업종합대학 교원, 연구사들과의 긴밀한 려면적에 걸친소성로의 온도를 자동적으로 조절하는 프로그램을 새로 개발 도입한것을 비롯하여 유압프레스제품리탈장치, 전자장식방범 등 올해에 들어와서만도 10여건의 기술혁신안을 생산에 받아들여 원가를 극력 낮추면서 제품의 질과 문화성을 높이고 있다. 특파기자 김 기 두

## 대고조성투쟁의 새 소서

### 년간계획을 완수한 기세로 계속 전진

### 8.28 청년들력대관리국에서

사회주의강성대국건설에서 선군조선청년들의 기세를 남김없이 발휘할데 대한 당의 전투적소호를 높이 받들고 8.28청년들력대관리국의 일군들과 청년들력대원들이 지난 10월 10일까지 년간인민경제계획을 빛나게 완수한 기세로 계속 힘차게 전진하고 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청년들은 사회주의강성대국건설에서 선군조선청년들의 영웅적기개를 높이 떨쳐야 합니다.》

인민생활에서 결정적전환을 이룩할데 대한 공중사업의 전투적주요를 꿰뚫는 심장마다에 새겨안은 8.28청년들력대관리국의 일군들은 올해 맡겨진 전투업무를 당창건 65돐까지 무조건 끝낸 통이 큰 목표를 세우고 인민군대지휘관들처럼 전투조직과 지휘를 배기 있게 해나갔다. 전투승리의 확고한 열쇠는 청년대중의 정신력을 최대한으로 폭발시키는 데 있다는것을 실감으로 체득한 관리국의 일군들은 년초부터 청년들력대원들속에 들어가 청춘의 기백과 열정을 분출시키는 화신적지침사업을 세차게 벌여나갔다.

2려단 2대대 청년들력대원들은 막장이 깊어질수록 강성대국의 결승선을 가까와진다는 드높은 자각을 안고 앞선 발과 방법과 대중적기술혁신운동을 벌여 년간 석관생산계획을 150%이상으로 넘쳐 수행한

관리국장 김경남동무는 초강도강행군을 펼치지 않고 이어가는 위대한 장군님의 발걸음에 자신의 보폭을 따라세워야 한다는 결사의 각오를 안고 대고조전투 첫시작부터 전투현장들에 내려가 청년대중속에 기적과 위훈의 불길을 지펴 올렸다.

당조직의 지도밑에 김춘선, 김일국동무를 비롯한 관리국의 능력있는 일군들이 려단과 공장에 내려가 생산조직과 자체보장사업을 잘 짜고들면서 청년들력대원들이 부강조선의 앞장에 새 힘찬 새 기적을 창조해나가고도 적극 떠밀어주었다.

인민생활향상에서 많은 몫을 담당하고있는 김덕기에게 전투위치를 차지하고있는 1려단의 일군들과 청년들력대원들은 어려운 작업조건에서도 혁명적인 인성, 자력강성의 혁명적기풍을 높이 발휘하여 지난해에 비해 높이 세운 팜물생산계획을 8월말까지 끝내는 기적을 창조하였다.

2려단 2대대 청년들력대원들은 막장이 깊어질수록 강성대국의 결승선을 가까와진다는 드높은 자각을 안고 앞선 발과 방법과 대중적기술혁신운동을 벌여 년간 석관생산계획을 150%이상으로 넘쳐 수행한

본사기자 활 철 중



더 많은 쇠들을 생산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이고있다. -무산광산련합기업소에서- 본사기자 리명남 찍음

# 백승멸치는 수령의 군대, 당의 군대

## 혁명일화

### 쌍알에 비낀 소원

오늘 우리 인민군대는 위대한 수령의 선군혁명령도를 앞장에서 받들어가는 수령의 군대, 당의 군대로서 자기의 존엄과 영예를 높이 떨치고있다.

혁명의 준엄한 년대마다 정의 총대를 높이 추켜들고 수령의 명령을 충직하게 받들어오는 우리 인민군대의 자랑스러운 역사를 돌이켜볼 때면 수직성상에 달하는 군권 실행도의 나날 인민군대를 수령의 군대, 당의 군대로 강화발전시켜오신 경애하는 장군님의 불멸의 영도업적이 뜨겁게 인자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인민군대가 오늘과 같이 정치사상적으로, 군사기술적으로 튼튼히 준비된 일당백의 혁명무력으로 강화발전되어 당과 혁명, 조국과 인민의 보위자로서의 영예로운 사명을 다하고있는것은 전적으로 김정일동지의 올바른 영도도의 결과이다.》**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에서 혁명무력은 수령의 군대, 당의 군대로 건설하는것은 사회주의위업을 승리적으로 전진시켜나가는데서 나서는 중요한 문제이다. 력사적경험은 로동계급의 당이 혁명무력건설에서 이 문제를 올바르게 해결하지 못하면 사회주의의 운명이 돌이킬 수 없는 후과를 미치게 된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일찍이 조선인민군 구위 서울류경수제 105탄약사단에 선군혁명령도의 첫 자욱을 새기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혁명무력건설에서 나서는 이러한 문제의 중요성을 깊이 통찰하시고 장강 수직성상에 달하는 군권실행도의 나날 인민군대를 수령의 군대, 당의 군대로 강화발전시키는데 선차적인 힘을 쏟으시였다. 이미 1960년대에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에 대한 교양을 기본으로 하는 정연한 군인교양체계를 건국에 새롭게 세워주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1970년대에 들어오면서 인민군대안의 당정치사업을 더욱 강화하도록 이끌어주시였다.

주제 59 (1970)년 3월 어느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인민군대의 한 책임일군에게 최근 수령님께서 개척하신 주제혁명위업을 끝까지 계승발전시키기 위하여서는 인민군대를 그 어떤 폭풍이 불어와도 끄떡하지 않는 불패의 혁명무력으로 만들어야 하겠다는것을 더욱 철저히 느끼게 되였다고 하시면서 력사적경험과 교훈은 당에 충실한 혁명적투쟁력이 없다는것은 어떤 당도 자기의 위업을 완성할수 없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고 말씀하시였다.

그러나 위대한 수령님께서 인민군대에 대한 총실성의 전통이 대를 이어 계승되고 인민군대는 수령의 군대, 당의 군대로서의 면모를 뚜렷이 갖추어나가게 되었다. 선군주제사상화의 기치밑에 우리 혁명무력을 무적철승의 강군으로 키우신 위대한 장군님의 선군혁명령도에서 지난 10여년간은 인민군대를 당과 수령의 혁명위업에 무한히 충실한 전위투사들로 여세로 키워신 특출한 년대기로 빛내고있다.

주목할데 준엄한 시험이 닥쳐왔던 시기에 위대한 장군님께서 인민군대를 혁명의 기둥으로 내세워 조국과 민족의 운명을 지키고 전민적사회의건설을 힘있게 밀고나가실 철의 의지를 지니시고 인민군대의 정치사상적위력을 백방으로 강화하는데 큰 힘을 쏟으시였다. 주국의 방상을 지켜선 병사들을 찾아 끊임없이 절고려시리는 전진전에서 인민군대를 무적철승의 전위대로 강화발전시키자면 무엇보다도 군인들에 대한 사상교양사업을 강화하여야 한다고 하시며 인민군대안의 당정치사업을 개선하는데서 나서는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신 경애하는 장군님.

어느때인가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인민군지휘성원들에게 인민군대에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당정치사업을 끊임없이 개선강화할데 대한 가르치심을 주시면서 말씀하시였다. **“우리 인민군대는 당의 군대, 혁명의 군대이며 따라서 그 위력을**

강화하기 위한 기본방도는 당정치사업을 힘있게 벌리는것이다. 당정치사업을 훌륭하게 되면 혁명군대가 비정치화, 비사상화바람을 막아낼수 없으며 나중에는 제국주의들과 혁명의 변절자들에게 통략당할수 있다. ...

위대한 수령님의 주제적인 군권실사상과 령도업적을 빛나게 계승발전시켜나가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혁명령도에 의하여 오늘 우리 인민군대는 당과 수령의 혁명위업에 끝없이 충실한 일당백의 전위대로 오르게 되어있다. 주국이 그처럼 어려워졌던 고난의 행군, 강행군시기 제국주의자들의 끊임없는 전쟁도발책동을 걸음마다 저지르고 조국과 인민의 안전, 혁명의 전위력을 믿음직하게 지켜낸 것도, 혁명적군인정신으로 사회주의강대국건설의 전진로로 열어나온 것도 경애하는 장군님의 선군혁명령도를 가장 충직하게 받들어 나가는 우리 인민군대이다.

위대한 백두령장의 손길에서 무적철승의 혁명강군으로 자라나 조국보위도 사회주의건설도 우리가 다 맡는다는 신념의 구호를 높이 들고 조국의 안전을 혁명의 총대로 굳건히 지켜가며 새로운 천리마속도, 최첨속도로 선군시대 기념비적 창조물들을 도처에 일떠세우고있는 영웅적인민군대를 가지고있는것은 우리 당과 인민의 크나큰 자랑이며 긍지이다.

우리 인민군대는 앞으로도 경애하는 김정일동지의 선군혁명령도따라 배우서 개척된 주제혁명위업을 완성하기 위한 투쟁의 선봉수령의 군대, 당의 군대로서 자기의 영예로운 사명을 다해나갈것이다. **본사기자 김 온**

지난 8월 어느날 927탑공장은 절세의 위인을 모신 환희와 영광으로 끝없이 설레이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이 공장에 와보니 기분이 좋다고, 정말 기분이 좋다고 대만족을 표시하시며 때때로 공작원들을 방문하여 행복의 시간이 돌이켜져 가슴이 새차게 울렸었다. 그때 알모기실에서 콘베어를 타고 없었이 흘러내리는 땀알들을 보시며 잠시동안 폴리스탄 환하게 웃으시던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큰 땀알을 손에 드시고 기쁨에 넘쳐 말씀하시였다. **《927탑공장에서 생산되는 땀알들이 크고 쌍알도 많이 나옵니다. 그것은 앞으로 땀알이 많이 생산될 좋은 징조인것 같습니다.》**

크나큰 흥분에 휩싸인 일군들의 눈앞에는 주제90 (2001)년 9월초 경애하는 장군님을 공장에 모시였던 영광의 그날이 어찌런듯 펼쳐졌다. 새로 일떠선 현대적인 탑공장에서 끝없이 흘러나오는 땀알들을 보시며 마치 땀알폭포가 쏟아져내리는것 같다고 기뻐하시던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큰 땀알을 가지고 기뻐하시던 때와 달리 땀알이 많이 나옵니다. 그것은 앞으로 땀알이 많이 생산될 좋은 징조인것 같습니다. **본사기자 김 온**

위대한 백두령장의 손길에서 무적철승의 혁명강군으로 자라나 조국보위도 사회주의건설도 우리가 다 맡는다는 신념의 구호를 높이 들고 조국의 안전을 혁명의 총대로 굳건히 지켜가며 새로운 천리마속도, 최첨속도로 선군시대 기념비적 창조물들을 도처에 일떠세우고있는 영웅적인민군대를 가지고있는것은 우리 당과 인민의 크나큰 자랑이며 긍지이다.

우리 인민군대는 앞으로도 경애하는 김정일동지의 선군혁명령도따라 배우서 개척된 주제혁명위업을 완성하기 위한 투쟁의 선봉수령의 군대, 당의 군대로서 자기의 영예로운 사명을 다해나갈것이다. **본사기자 김 온**

##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김영남동지 쿠바공화국 외무성대표단을 만났다

【평양 10월 22일발 조선중앙통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김영남동지는 22일 만수대의사당에서 마르코스 로드리게스 코스타 부상을 단장으로 하는 쿠바공화국 외무성대표단을 만나 친선적



인 분위기를 조성하여 담화를 하였다. 여기에는 김영남 외무성 부위원장, 판계부관 일군들과 호세 마누엘 갈레고 몬다노 주주 쿠바공화국 특명전권대사가 참가하였다.

석상에서 단장은 두 나라사이의 친선관계는 매우 훌륭하다고 하면서 방문기간 쿠바인민에 대한 조선인민의 친선의 정이 얼마나 뜨거울가를 잘 알게 되였다고 말했다. 그는 조선인민이 쿠바인민에게 표시하여준 전적인 지지와 연대성에 대하여 자기들은 언제나 잊지 않을것이라고 강조하였다.

## 고귀한 지침을 새겨주시며

우리 당창건 첫 시기부터 대오의 순결성을 확고히 보장하여 당의 조직사상적기초를 튼튼히 다지도록 손잡아 이끌어 오신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동지의 술회한 모습이 10월의 하늘가에 새차게 휘날리는 당기와 더불어 우리의 가슴에 뜨겁게 인자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김정숙동무는 조국의 광복과 우리 혁명의 승리를 위하여 자기의 모든것을 다 바쳐싸운 열렬한 혁명가였습니다.》** 주제34 (1945)년 12월 어느날이었다. 당시 청진에서 혁명활동을 벌리고있던 김정숙동지께서는 시당위원회를 찾으면서 위대한 수령님께서 내놓으신 당의 조직로선 관철정형을 구체적으로 알아보시였다. 그때 시당위원회의 조직부장이 아직은 핵심당원력량이 부족하고 당에 받아들일만한 준비된 사람들이 적기때문에 당정사업들을 하지 못하고있다고 사실그대로 말씀하였다. 한동안 그의 이야기를 주의깊게 듣고계셨던 김정숙동지께서는 그렇게도 핵심력량이 많지 않으니 생길 때까지 기다려줄것이라고 하시면서 로동자,

농민을 비롯한 각계각층 군중에서 간고인민대중의 리익과 부강한 자주독립국가건설을 위하여 몸바쳐싸울수 있는 우수한 사람들을 당에 적극 받아들여야 한다. 바로 이렇게 할 때라야 우리 당을 광범한 근로대중에게 깊이 뿌리박은 정당으로, 혁명의 참모부서 만들수 있다고 가르쳐주시였다. 그러시면서 준비된 사람들이 찾아오기를 기다릴것이 아니라 대중에 들어가 선진분자들을 찾아내고 잘 준비시켜 당에 받아들일데 대하여 강조하시였다.

일군들은 자책감을 금치 못하였다. 김정숙동지께서는 자기들이 범한 오류를 심중히 나무우시는 준엄한 시선을 돌리시며 당은 자기 대오의 순결성을 보장하고 사상의지정통일을 강화하여야 혁명의 참모부서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수 있다고 강조하시였다. 계속하여 여기에서는 청진시는 로동자들이 많이 집중되어 있는 반면에 지난해 도청을 비

## 생산도 학습도 생활도 항일유격대식으로!

###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을 높이 발휘하여 평성시 청옥목화전문협동농장에서

자력갱생만 이 살길이다! ... **《물론 처음 해보는 목화농사이기때문에 애로와 난관이 많을수 있고 힘에 부칠수 있었을것입니다. 하지만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을 가지고 무에서 유를 창조한 항일유격대원들의 투쟁기풍으로 일한다면 능히 성과를 거둘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무 지혜로 사는 사람은 흉하고 남의 힘으로 사는 사람은 당한다고 하신 경애하는 장군님의 말씀을 심장에 새기고 한사람같이 일해서 투쟁함으로써 목화농사에서 전국의 앞장에 선시다. ... **《물론 처음 해보는 목화농사이기때문에 애로와 난관이 많을수 있고 힘에 부칠수 있었을것입니다. 하지만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을 가지고 무에서 유를 창조한 항일유격대원들의 투쟁기풍으로 일한다면 능히 성과를 거둘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적극 싸고들었으며 종자확보, 질 좋은 유기질거름의 생산 및 반출, 토지개량 등 목화농사를 위한 일에 몸을 추잡고였다. ... **《물론 처음 해보는 목화농사이기때문에 애로와 난관이 많을수 있고 힘에 부칠수 있었을것입니다. 하지만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을 가지고 무에서 유를 창조한 항일유격대원들의 투쟁기풍으로 일한다면 능히 성과를 거둘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목화창고건설... 경애하는 장군님의 숭고한 사명을 대지에 활짝 꽃피우려는 일념을 안고 그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펼쳐나 포전에 애국의 열정을 뜨겁게 쏟아부어 나라의 이야기들을 목화농사경험을 배우려고 이목을 찾는 사람들의 심금을 울려주고있다. **본사기자 김 온**

## 평양 제 1 백화점에서

혁명가들의 첫해가는 임무는 학습을 잘하는것이라고 하신 위대한 수령님의 가르치심을 잘 받들고 안에서 책을 놓지 않았던 항일혁명투사들의 학습이기에 배우투사들의 영도업적이 깃들여있는 평양제1백화점의 일군들과 종업원들속에서 적극 발휘되고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혁명가는 사람들뿐 아니라 학습을 하는 사람들도 배워야 한다.》** ... **《물론 처음 해보는 목화농사이기때문에 애로와 난관이 많을수 있고 힘에 부칠수 있었을것입니다. 하지만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을 가지고 무에서 유를 창조한 항일유격대원들의 투쟁기풍으로 일한다면 능히 성과를 거둘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일터를 사회주의의 맛이 나게

최근년간 연안장공장의 면모가 새롭게 일신되고있다. ... **《물론 처음 해보는 목화농사이기때문에 애로와 난관이 많을수 있고 힘에 부칠수 있었을것입니다. 하지만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을 가지고 무에서 유를 창조한 항일유격대원들의 투쟁기풍으로 일한다면 능히 성과를 거둘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공장의 일군들과 종업원들은 배두림에 나래지던 항일유격대원들의 생활기풍을 본받아 자기들의 일터를 꾸리기 위한 사업을 대담하고 통이 크게 벌려나갔다. **본사기자 김 온**

## 연안 장공장

공장의 일군들과 종업원들은 배두림에 나래지던 항일유격대원들의 생활기풍을 본받아 자기들의 일터를 꾸리기 위한 사업을 대담하고 통이 크게 벌려나갔다. **본사기자 김 온**

몇해전 당의 높은 신념에 의하여 공장에 배치되어온 한 일군은 종업원들과의 여러차례 협의끝에 공장의 생산건물들을 새롭게 일신할데 대한 목표를 내세웠다. **본사기자 김 온**

## 일터를 사회주의의 맛이 나게

최근년간 연안장공장의 면모가 새롭게 일신되고있다. ... **《물론 처음 해보는 목화농사이기때문에 애로와 난관이 많을수 있고 힘에 부칠수 있었을것입니다. 하지만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을 가지고 무에서 유를 창조한 항일유격대원들의 투쟁기풍으로 일한다면 능히 성과를 거둘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공장의 일군들과 종업원들은 배두림에 나래지던 항일유격대원들의 생활기풍을 본받아 자기들의 일터를 꾸리기 위한 사업을 대담하고 통이 크게 벌려나갔다. **본사기자 김 온**

본사기자 리성국

본사기자

본사기자

본사기자

# 대고조의 불길높이 벼단실어들이기와 낱알털기를 전투적으로

## 열 두 삼 천 리 별 의 농 촌 들 에 서

### 혁신적인 방도를 찾아주고 완강하게 내밀 때

당장전 65톤을 승려자의 대축전으로 성대히 경축한 자 랑을 안고 숙천군의 일군들과 농업근로자들이 가을걷이전투 에서 헌신적 노력을 일으켰다. 이들은 짧은 기간에 벼베 기를 끝낸데 이어 벼단실어들이 기와 낱알털기를 일일적으로 완수하였다. 이것은 올해 농사 결속을 잘하기 위해 작전을 면밀 하게 짜고는 군일군들의 사 업과 때를 맞추어 생각할 수 없다. 위 대 한 령 도 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었다.

《애써 지어놓은 곡식을 빨리 꺼내어 낱알털기를 다그쳐야 합니다.》

가을걷이가 한창이던 어느날 군인의 여러 농장들을 돌아보는 군일일군의 생각이 깊었다. 낱알털기를 더욱 앞당길수 있는 방도는 무엇이겠는가. 그가 이렇게 생각하게 된다는 그럴만한 이유가 있었다. 가을철에 들어서면서 비가 자주 내리는 현실은 모든 농장에서 낱알털기를 앞당길것을 요구하였다. 이 문제를 해결할수 있는

이것은 지금과 같이 불리한 조건에서도 작전을 잘하면 얼마든지 낱알털기를 짧은 기간에 끝낼수 있다는것을 보여주었다. 그후 책임일군은 군일군들의 회의에서 참가자들에게 조건이 불리한 매일수확 일군들이 문제해결의 방도를 찾아주고 완강하게 밀고나가야 성과를 거둘수 있다고 하면서 이렇게 말했다.

《낱알털기를 앞당겨 끝내기 위해서는 벼단실어들이기를 다그쳐야 합니다. 대중의 지혜와 힘을 발휘하여 그 방도를 찾아냄으로써 올해 농사를 성과적으로 해결합시다.》

책임일군의 말은 참가자들의 전진적 지지를 받았다. 군일군들은 농장들에 내려가 현실을 새롭게 보면서 혁신적인 방도를 찾아나갔다. 결과는 좋았다. 일군들은 벼단실어들이기를 빨리 끝낼수 있는 좋은 방도를 찾아냈다. 그중에서 주목되는 것은 벼단을 종전보다 작게 묶도록 하는것이였다. 이렇게 하면 짧은 기간에 벼단을 잘 마무리 수 있었고 벼단실어들이기에 도 낱알털기를 막을수 있었다. 이것이 좋은 방도라고 판단한 군일군들은 농장일군들과의 긴밀한 관계밑에 현장에 나가 정치사업을 앞세우면서 전투를 지휘해나갔다.

올해 농사의 승패가 자기들의 노력에 달려있다는것을 자각하고 분발해나선 농업근로자들의 기세는 높았다. 그들은 벼단실어들이기를 빨리 하는가 못하 는가 하는데 따라 낱알털기의 성과가 좌우된다고 하면서 목표를 높이 세우고 이른이침부터 달려나와 벼단을 묶는속도 조건도로서가 운반하였다. 그리하여 벼단실어들이기에서는 전례없는 혁신이 일어났다.

어느날 사산농장에 나갔던 군 일군들은 작업반마다 여러명의 농업근로자들이 벼단을 실는 작업에 고집배치된것을 알게 되었다. 군일군들이 공감되는것이 있어 구체적으로 알아본 결과

이 방법은 벼단실어들이기속도를 높인데서 아주 효과적이였다. 우선 그들이 이 작업에 숙련되어 포리를 터뜨림으로써 벼단을 실는 시간이 단축되었다. 또한 벼단운반이 끝나는 날까지 작업과제가 명백하니 농업근로 자들은 높은 책임성을 가지고 맡은 일을 잔지게 해나갔다. 결과 작업능률이 높아졌다.

군일군은 즉시 다른 농장들에서도 이 방법을 받아들이도록 하기 위한 대책을 세웠다. 그리하여 농장들에서는 로력조 직을 잘하고 벼단실어들이기속 도를 더욱 높여나갔다.

군일군들은 여기에 만족하지 않고 들끓는 전투분위기에 맞게 포전에 나가 농업근로자들과 함께 일손을 잡고 땀을 흘리면서 제기되는 문제들을 제때에 풀어 주었다. 그리하여 벼단실어들이 기를 앞세움으로써 낱알털기를 짧은 기간에 끝낼수 있는 담보를 마련하게 되었다.

혁신적인 방도를 찾아주고 올해 농사결속을 위한 작전과 지휘를 잘하고있는 이곳 일군 들의 사업은 경χη적이이다.

문덕군 일군들과 농장원들 된 열의에 맞게 방송선전차를 비롯한 선전선동수단들을 집중 하여 정치사업을 참신하게 벌 리였다.

백두산위인들의 불멸의 영도 업적이 어려있는 립석협동농장의 가을걷이전투장은 더욱 세 차게 끓어올랐다.

이른아침 포전에 달려나온 제3작업반원들은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판리위원장을 비롯 한 농장일군들이 벌써 수령을 타고앉아 많은 면적의 벼가 을 해제된것이였다. 논밭에서 벼를 베고 단을 묶어 나란히 세워놓는 이들의 모습이 한타하는 실농군도 감탄할 정도였다.

《포전이 마르기를 기다릴수 없습니다. 봄내, 여름내 애써 지은 곡식을 한이삭이라도 허 실하지 않자면 벼가을을 다그 쳐야 합니다.》

농장일군의 이야기에 호응하 여 모두가 떨쳐나섰다. 앞서거 니 뒤서거니 하면서 논밭에 뛰 어든 농장원들은 승벽내기로 드넓은 포전의 벼가을을 잠깐 사이에 해제했다. 이에 뒤질세 라 제1, 6, 4작업반의 농장 원들도 서로 돕고 이따서 집 단주의정신을 높이 발휘하여 가을을 벼단을 그날로 포전 도로에 운반하였다.

집단적혁신의 불길은 다른 농장들에서도 타올랐다. 비가 많이 내리 운반수단들이 논밭 에 들어서지 못하게 되였을 때 였다. 동림협동농장의 일군들 은 주저하지 않았다. 벼단운 반이 늦어지면 그만큼 낱알 털기성과 오르지 못한다는 것을 명심한 그들은 지체를 지 고 나섰다. 농장일군들의 이 모습은 말없는 호소가 되어 농 장원들을 힘있게 불려일었다. 그리하여 이들은 벼단운 반을 일일계획대로 내밀어 낱 알털기를 성과적으로 보장해 나갔다.

이들만이 아니였다. 트랙포 르운전수들은 적제합을 개조하 여 지난 시기보다 1.5배의 벼단을 실어나르면서 운반실적 을 올렸다. 남이, 풍중협동 농장의 일군들과 농장원들은 부림소의 이용률을 높여 벼단 운반을 확고히 앞세웠다.

인흥협동농장의 일군들과 농장원들도 한마음한뜻이 되 여 벼단운반과 낱알털기속도 를 높여나갔다. 낱알털기로 말뚝장은 불도가나마냥 쪼아 번지였다. 낱알털기가 시작 된 첫날부터 말뚝장을 타고갔 는 벼단들이 한이삭이라도 허 실하지 않자면 벼가을을 다그 쳐야 합니다.》

농장일군의 이야기에 호응하 여 모두가 떨쳐나섰다. 앞서거 니 뒤서거니 하면서 논밭에 뛰 어든 농장원들은 승벽내기로 드넓은 포전의 벼가을을 잠깐 사이에 해제했다. 이에 뒤질세 라 제1, 6, 4작업반의 농장 원들도 서로 돕고 이따서 집 단주의정신을 높이 발휘하여 가을을 벼단을 그날로 포전 도로에 운반하였다.

집단적혁신의 불길은 다른 농장들에서도 타올랐다. 비가 많이 내리 운반수단들이 논밭 에 들어서지 못하게 되였을 때 였다. 동림협동농장의 일군들 은 주저하지 않았다. 벼단운 반이 늦어지면 그만큼 낱알 털기성과 오르지 못한다는 것을 명심한 그들은 지체를 지 고 나섰다. 농장일군들의 이 모습은 말없는 호소가 되어 농 장원들을 힘있게 불려일었다. 그리하여 이들은 벼단운 반을 일일계획대로 내밀어 낱 알털기를 성과적으로 보장해 나갔다.

안주시 남철협동농장에서 올해 농사를 빛나게 결속하기 위한 투쟁으로 들끓고있는 안주시 남철협동농장에 가면 이동식탈곡기가 은을 번다는 이야기를 들을수 있다.

위 대 한 령 도 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었다.

《벼를 잘 걸어들이고 낱알털기를 끈기있게 하여 한알의 낱알도 허실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겠습 니다.》

우리는 이동식탈곡기를 제2작업반에서 써볼수 있었 으며, 고르로운 동을 울리 며 돌아가는 이동식탈곡기 에 벼단을 실기는 농장원 들, 쏟아져나오는 벼를 받 아내는 농장원들, 벼집을 받아 처리하는 농장원들... 이동식탈곡기로 낱알을 털 어내는 자랑스립을 모습으 보며 기쁨을 금치 못해서 더 우리를 안내하던 농장일 군이 한마디 하는것이였다.

《사람들은 이동식탈곡기 로 낱알을 털어내는 모습을 보며 이윽하는 <탈곡장 이라고 한다.》

그러면서 그는 이동식탈 곡기를 수리하던 때의 이야 기를 들려주는것이였다.

사실 가을걷이준비를 할 때 농장의 일부 일군들은 이동식 탈곡기수리를 소홀히 하고있 었다. 한것은 탈곡장들에 있는 탈곡기들만 수리정비해둔 었지만 낱알털기를 일일계 획대로 끝낼수 있다는데 산에

이동식탈곡기 수리정비 하였다. 하지만 판리위원장을 비롯한 일군들의 생각은 그렇 지 않았다.

기계화작업반원들과 자리를 같이 한 일군들은 뜻깊은 올해 농사를 빛나게 결속하는데 서 낱알털기실적을 보다 높이 는 문제가 중요하다는것을 다시한번 강조하면서 이 동식탈곡기들을 자체의 힘 으로 수리하자고 하였다.

이렇게 되어 기계화작업 반에서는 이동식탈곡기들을 수리하기 시작하였다. 정작 제2작업반에서 볼수 있었 으며, 고르로운 동을 울리 며 돌아가는 이동식탈곡기 에 벼단을 실기는 농장원 들, 쏟아져나오는 벼를 받 아내는 농장원들, 벼집을 받아 처리하는 농장원들... 이동식탈곡기로 낱알을 털 어내는 자랑스립을 모습으 보며 기쁨을 금치 못해서 더 우리를 안내하던 농장일 군이 한마디 하는것이였다.

《사람들은 이동식탈곡기 로 낱알을 털어내는 모습을 보며 이윽하는 <탈곡장 이라고 한다.》

그러면서 그는 이동식탈 곡기를 수리하던 때의 이야 기를 들려주는것이였다.

사실 가을걷이준비를 할 때 농장의 일부 일군들은 이동식 탈곡기수리를 소홀히 하고있 었다. 한것은 탈곡장들에 있는 탈곡기들만 수리정비해둔 었지만 낱알털기를 일일계 획대로 끝낼수 있다는데 산에

가을걷이전투에서 애국농민들의 열의를 본 농장원들

이동식탈곡기 수리정비 하였다. 하지만 판리위원장을 비롯한 일군들의 생각은 그렇 지 않았다.

기계화작업반원들과 자리를 같이 한 일군들은 뜻깊은 올해 농사를 빛나게 결속하는데 서 낱알털기실적을 보다 높이 는 문제가 중요하다는것을 다시한번 강조하면서 이 동식탈곡기들을 자체의 힘 으로 수리하자고 하였다.

이렇게 되어 기계화작업 반에서는 이동식탈곡기들을 수리하기 시작하였다. 정작 제2작업반에서 볼수 있었 으며, 고르로운 동을 울리 며 돌아가는 이동식탈곡기 에 벼단을 실기는 농장원 들, 쏟아져나오는 벼를 받 아내는 농장원들, 벼집을 받아 처리하는 농장원들... 이동식탈곡기로 낱알을 털 어내는 자랑스립을 모습으 보며 기쁨을 금치 못해서 더 우리를 안내하던 농장일 군이 한마디 하는것이였다.

《사람들은 이동식탈곡기 로 낱알을 털어내는 모습을 보며 이윽하는 <탈곡장 이라고 한다.》

그러면서 그는 이동식탈 곡기를 수리하던 때의 이야 기를 들려주는것이였다.

사실 가을걷이준비를 할 때 농장의 일부 일군들은 이동식 탈곡기수리를 소홀히 하고있 었다. 한것은 탈곡장들에 있는 탈곡기들만 수리정비해둔 었지만 낱알털기를 일일계 획대로 끝낼수 있다는데 산에

### 사랑스러운 혁신자들

문덕군 립석협동농장 제3작업반 박동식동무는 실력있는 작업반장이다. 그는 뜻깊은 올해를 앞둔 농사방향을 더 많이 배우기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다. 가을걷이전투에서도 언제나 앞장서서 서서 뛰고 또 뛰는 그를 작업반원들은 아끼고 사랑하고있다.

평원군 매전협동농장 김원국동무는 책임성높은 트랙포 르운전수이다. 그는 예비부 속공과 수리공부를 빈틈없이

말겨진 일을 척척 해내고있 다. 모든 일을 과학기술적으 로 하기 위해 애쓰고있는 그 는 앞선 농사방향을 더 많이 배우기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다. 가을걷이전투에서도 언제나 앞장서서 서서 뛰고 또 뛰는 그를 작업반원들은 아끼고 사랑하고있다.

평원군 매전협동농장 김원국동무는 책임성높은 트랙포 르운전수이다. 그는 예비부 속공과 수리공부를 빈틈없이



위 대 한 령 도 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었다. 《농사의 주인은 어디까지나 농업근로자들과 협동농장원들입니다.》

인민무력부장이 중국인민해방군 문예단 지휘성원과 주요배우들을 만났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부위원장인 인민무력부장 김영춘동지가 22일 중국인민지원군 조선전선참전 60돐에 즈음하여 우리 나라를 방문하고

있는 중국인민해방군 총정치부 선전부 부부장 리국영을 단장으로 하는 중국인민 해방군 문예단 지휘성원과 주요배우들을 만나 친선적인 분위기속에서 담화를 하였다.

여기에는 한동군상장을 비롯 한 조선인민군 장령, 군관들과 학호비 주조 중화인민공화국 대사관 공사참사, 순연공국방 무관이 참가하였다.

공사속도를 높인 비결

희천발전소 건설 철도성 련단에서

김정정, 김백해동무를 비롯 한 련단의 지휘관들과 전투원 들의 생각은 깊어졌다.

공사속도를 높일 방도는 없었는가.

지휘관들과 전투원들은 집 체적으론 기뻐하였다. 그 따위에 공사속도를 높일수 있 는 좋은 안들이 제기되었다. 그중 하나가 물길굴이 판공된 조건에서 착암작업을 종전처럼 분산시켜서 할것이 아니라 일정한 구간에서 집중적으로 하자는것이였고 또 다른 하나 는 발파를 동시에 하는것이였다.

에서 작업속도가 눈에 띄이게 높아지게 되었다. 중요하게는 단위별로 저마끔 발파할 때에 비해 기다림시간이 훨씬 줄어든것이였다. 련단참모부에서 새로운 작업방법을 받아들인 후 줄어든 기다림시간을 측정해보니 한주일동안은 공 하루라는 시간의 예비가 생겨났다는것이였다. 이것은 련단의 지휘관들과 돌격대원들의 혁신적인 일본새를 보여주는 단편적인 이야기이다.

붉은기장신으로 날에날마다 위훈을 창조하고있는 철도성 련단의 전투원들은 오늘도 말 은 공사과제를 질적으로 수행 하기 위해 집체적협력을 합쳐 가며 진군속도를 높이고있다.

본사기자 강 명 천

조선농업근로자동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 진행

조선농업근로자동맹 중앙위원회 제61차 전원회의가 21일 평양에서 진행되었다. 전원회의에는 농공맹중앙위원회 위원, 후보위원들, 지방의 농공맹일군들이 참가하였다.

전원회의에서는 위 대 한 령 도자 김정일동지를 조선로동당 총비서로 변함없이 높이 모시고 우리 당의 선군령도를 충직하게 받들어가기 위한 농공맹조직들의 파업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리명길 농공맹중앙위원회 위원장의 보고에 이어 토론들이 있었다.

보고자와 토론자들은 농공맹조직들은 농공맹조직을 조선로동당 최고수위에 높이 모신것은 장군님에 대한 천만군민의 절대적인 지지와 신뢰의 분출이며 당의 선군령도따라 주체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성하 려는 혁명적의 신념과 의지를 파시한 정치적사변이라고 말하였다.

위대 한 김정일동지께서 조선로동당 총비서로 높이 추대되심으로써 우리 당과 혁명의 앞길에 더 밝고 장창한 미래가 펼쳐지고 민족중대의 비명을 위한 결정적담보가 마련되게 되었다고 그들은 강조하였다.

그들은 농공맹을 경애하는 장군님의 영도를 충직하게 받 들어나가는 선군혁명조직으로 더욱 강화하기 위한 파업과 방 동들을 제기하였다.

농공맹조직들은 동맹원들속 에서 위대 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우리 당의 최고지도기관에 영 연히 모시고 경애하는 김정일동지를 조선로동당 총비서로 변함없이 높이 추대 한 민족적근지와 자부심을 깊이 간직하도록 하기 위한 사상교양사업을 전폭적으로 벌려 나갔다고 그들은 말하였다.

그들은 사상교양사업을 여러 가지 형식과 방법으로 진행하 여 모든 농공맹원들과 농업근 로자들이 수령적사용위정신, 당정책에 대한 결사관철의 정 신을 발휘하게 할데 대하여 언 급하였다.

농공맹조직들은 당의 유일적 령도체계를 철저히 세우기 위 한 사업을 더욱 심화시키며 동맹안에 위대 한 장군님의 말씀과 당의 방침을 철저히 관철하는 기풍이 차넘치게 강조하였다.

그들은 농업발전에 쌓인 경애하는 장군님의 령도업적을 옹호고수하며 당의 농업 혁명방침을 관철하기 위한

### 후방사업을 통해 본 혁신적인 일본새

성천강채 육단 초급당위원회에서

그들의 생활을 따뜻이 돌봐주 고 하는 사실은 더욱더 감동적 이였다.

수백리길을 달려와 선수들을 고무해주는 정치사업도 힘있게 벌리고 경기에 있어 이기자들 든든히 먹어야 한다고 하면서 식 사계획표를 만들어놓고 자신이 직접 음식을 만들어 풍성한 식 탁을 마련해주는 초급당비서의 정정은 선수들의 사기를 부쩍 높여주었다.

그리하여 체육단은 도별대학 경기에서 종합 1등의 영예를 차지할수 있었다. 이것을 계기로 초급당비서는 후방사업에 큰 힘을 넣을수록 경기에 있어 높은 성과를 거둘수 있다는것을 다 시금 깊이 절감하게 되었다. 초 급당위원회는 더 높은 목표를 제기했다. 체육단의 후

방사업에 대한 혁신적인 일본새

성천강채 육단 초급당위원회에서

그들의 생활을 따뜻이 돌봐주 고 하는 사실은 더욱더 감동적 이였다.

수백리길을 달려와 선수들을 고무해주는 정치사업도 힘있게 벌리고 경기에 있어 이기자들 든든히 먹어야 한다고 하면서 식 사계획표를 만들어놓고 자신이 직접 음식을 만들어 풍성한 식 탁을 마련해주는 초급당비서의 정정은 선수들의 사기를 부쩍 높여주었다.

그리하여 체육단은 도별대학 경기에서 종합 1등의 영예를 차지할수 있었다. 이것을 계기로 초급당비서는 후방사업에 큰 힘을 넣을수록 경기에 있어 높은 성과를 거둘수 있다는것을 다 시금 깊이 절감하게 되었다. 초 급당위원회는 더 높은 목표를 제기했다. 체육단의 후





